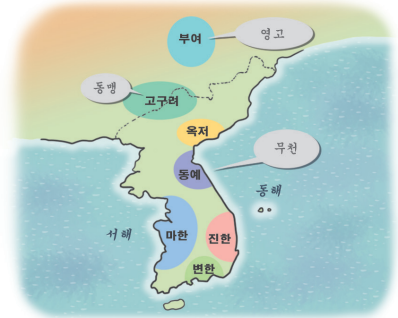


상고 시대~남북국 시대 음악 기원전~기원후 918년 ●● 시대별 음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상고 시대 상고 시대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천 의식에서 집단으로 춤과 노래를 즐겼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등의 제천 의식은 오늘날 정월 대보름, 단오제, 별신굿, 풍어제, 대동굿, 풍물놀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여러 부족의 제천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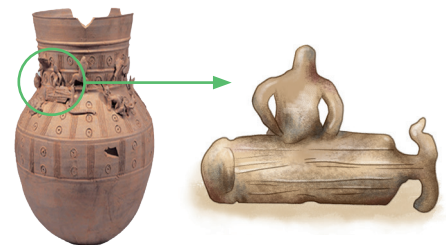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강화도 마니산의 참성단

.....
삼국 시대 고구려는 중국·서역과 활발하게 교류하며 음악을 수용하였고, 왕산악은 거문고를 제작하여 많은 악곡을 연주하였다. 백제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와 노래, 춤이 합쳐진 가면극이 발달하였으며, 미마지는 일본에 기악 탈춤을 전파하였다. 신라에서는 가얏고(가야금)를 중심으로 향토 음악이 발전하였다.



고구려 무용총 벽화에 그려진 거문고



신라 토우 장식 항아리에 그려진 가얏고

.....
남북국 시대 통일 신라에는 삼현삼죽의 악기가 발달하였고, 음악을 관장하는 음성서가 설치되었다. 진감선사가 당나라에서 범패를 들여와 전파하였으며 향가가 성행하여 처용가, 헌화가 등이 전해진다. 발해는 당나라와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하고, 음악 관장 기관인 태상시를 설치하였다. 또 고구려의 거문고를 계승하여 발해금으로 발전시켰다.



삼현(가야금, 거문고, 비파)

삼죽(대금, 중금, 소금)



범패